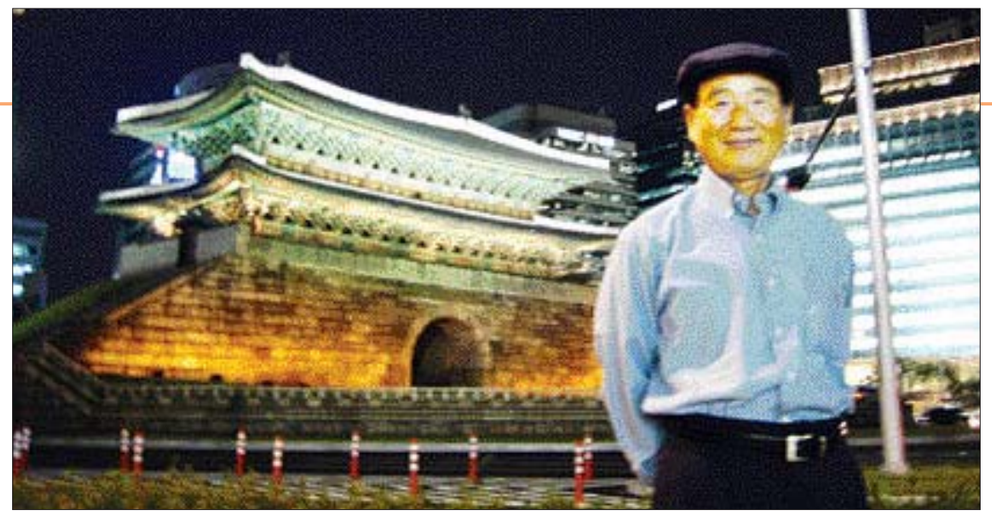
1961년 숭례문 중수 설계 담당 재미교포 최용완씨

"불타는 숭례문 보면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웅장하고 아름답던 숭례문 복원을 돕고 싶습니다."

1960년대 진행된 숭례문 중수공사 때 설계와 도면을 담당했던 광주 출신 재미 건축설계사가 최근 숭례문 화재사건을 접하고 복원작업 참가의 뜻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언제든 복원 도울 것"

미국 서부 뉴포트비치에 살고 있는 최용완(69)씨는 순천에서 태어나 광주 서중·일고를 거쳐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이듬해인 1961년 숭례문 중수공사에 참여했다.

수작업으로 설계도 완성

중수공사는 숭례문 자체를 완전 해체한 뒤 다시 짜맞춰야 했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최씨는 꼼꼼한 확인과 수작업을 통해 설계도를 그리는 데 성공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힘들어 일을 그만 뒀어요. 3년간의 보수공사를 마무리했고, 그 때 공을 인정받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됐죠."

지난 10일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최씨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신이 보관 중인 숭례문 중수공사 당시 도면 등이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본보에 연락한 것이다.

1966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으로 유학한 뒤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최씨는 건축 설계 관련 일을 해오다 2년 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매년 방한, 광주를 찾는다고 했다.

최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동구 서석동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 시절이 눈에 선하다"며 "지금은 6남매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서 아득한 옛날 일이 돼버렸다"고 회상했다.

특히 부모님의 유해를 풍장(風葬)한 원효사 근처는 한국에 오면 빼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다.

은퇴 후 매년 광주 찾아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생각이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묘를 쓰더라도 돌봐줄 자손이 고국에 없으니 무등산 자락에 부모님 유해를 뿌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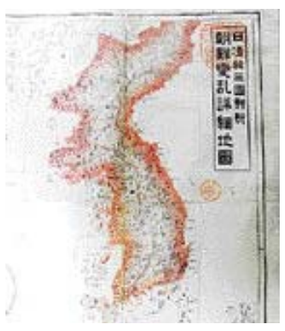
광주 출신 재미 건축설계사 최용완씨가 지난 2005년 방한, 자신이 보수했던 숭례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아래는 1960년대 숭례문 중수공사 당시의 최용완씨.

최씨는 "현장에서 손을 뗀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아직 감각은 쓸 만하다"며 "숭례문 복원 사업에서 국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우찬 〈7440〉 김종두

'독도는 조선땅' 日지도 또 발견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근대 일본인들의 인식을 다시 확인해주는 지도가 발견됐다.〈사진〉

호사카 유지(保坂祐二·52)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1894년 독도와 울릉도를 한반도와 같은 색깔로 칠한 '신찬 조선국전도'라는 지도의 사본을 22일 공개했다.

2월 초 일본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이 지도에는 일본은 무색이지만 '마쓰시마(松島·현 독도)'와 '다케시마(竹島·현 울릉도)'라고 표기한 섬은 한반도와 같이 누렇게 채색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이 지도가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이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재확인해주는 물증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 10분새 5건 연쇄화재

19일 4건 이어…방화 추정 탐문수사

광주 도심에 방화로 추정되는 '도깨비 불'이 잇따르고 있다. '묻지마 방화'로 보이는 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경찰은 범인 윤곽도 못 잡고 있다.

21일 새벽 2시3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S목공소에서 불이나 내부면적 25㎡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꺼졌다. 이후 이날 새벽 2시45분까지 50~100여m 간격으로 농성동 지하차도 인근 도로변과 서구청 인근 잔디밭 등에서 모두 5건의 연쇄 화재가 나 잔디 20㎡가 소실됐다.

경찰은 '검은색 옷을 입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불을 질렀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에 따라 방화 가능성이 큰 곳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0시45분께에는 북구 용봉동 C대학 사범대 3호관 앞에서 불이 나 잔디 3㎡를 태운 뒤 50~100여m 간격으로 1시간 동안 인근 예술대 3호관, 구 중앙도서관 건너편 대나무 밭, 인문대 3호관 잔디밭 등에서 모두 4건의 연쇄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과학수사반을 동원, 정밀 감식에 나서고 있으며 계획적인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는 남구 백운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승용차에서 불이나 6분만에 진화됐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숭례문 방화범처럼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느끼는 좌절감이 분노로 변하면서 방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람 중에는 막연한 사회적 이슈를 범죄 대상으로 해 직접 관계가 없는 곳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한밤에 가정집 침입 금품 강탈 강도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2일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부부를 흉기 등으로 위협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임모(31)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이날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세하동 장모(39)씨의 주택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장씨 부부를 흉기와 둔기로 위협해 손발 등을 묶은 뒤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장씨의 레조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쫓기자 광주시 동구 전남여고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려다 탐문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안현주기자 ahj@

올 봄 황사 잦다

온난화 영향 기온도 상승

올 봄 광주·전남지역에는 평년보다 황사 발생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올 봄 호남 지역의 황사 발생일수는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치인 5.9일보다 더 많은 8~9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호남지역은 황사 발생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1일 정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호남 지역에서 1973년부터 2000년까지 황사의 평균 발생일수는 4.6일이지만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9일, 최근 10년 동안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중국 내륙 지역의 황사 발원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특히 호남 지역의 3~5월 기온의 경우 지구 온난화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인 6~17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강수량에 대해서는 평년 수준인 21.2~36.8㎜와 비슷하겠으나 4월에는 건조한 날이 많아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겠고, 5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올 봄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반면 온도는 높아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아 봄 가뭄은 물론 산불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황사가 발생했을 땐 외출을 자제하고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좋고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도 황사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미세한 모래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비 2008마리 '새정부 출범 축하' 22일 오전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 나비생태관에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축하 및 함평 세계 나비·곤충 EXPO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행사가 열렸다. 이석형 함평군수·이낙연 국회의원·정현철 함평군의회 의장 등이 국가와 지역의 공동발전을 기원하는 '희망의 나비' 2천8마리를 날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도박 단속 정보 흘려 돈 뜯어낸 경찰관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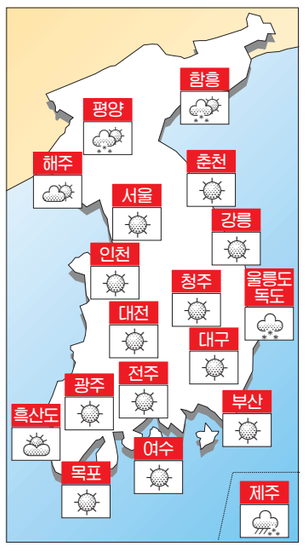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2일 친구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도박 단속에 관한 정보를 흘린 해남경찰서 소속 양모(40)경사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경사는 윷놀이 도박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면서 도박을 하고 있던 친구 주모(38)씨에게 미리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7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찬바람 쌩쌩

2월 23일 (음 1월 17일) ◇전국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은 구름 많겠다.

광 주	구름 조금	0~4℃
목 포	구름 많음	0~4℃
여 수	구름 조금	2~2℃
완 도	구름 조금	1~5℃
구 례	구름 조금	-2~5℃
해 남	구름 조금	-1~5℃
장 흥	구름 조금	-1~5℃
고 흥	구름 조금	1~6℃
순 천	구름 조금	-1~5℃
영 광	구름 조금	-2~4℃
진 도	구름 조금	0~5℃
전 주	구름 조금	-2~4℃
남 원	구름 조금	-4~5℃
흑산도	구름 많음	2~2℃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3.0m

목 포 밀물 03:27 15:48 썰물 08:40 21:01
여 수 밀물 10:31 22:46 썰물 04:13 16:30

▲해뜸 07:11 ▲해짐 18:22 ▲달뜸 20:35 ▲달짐 08: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날 씨						
최저/최고	-3/7	-2/8	1/5	-2/7	-2/10	-2/8

광주 기무부대 터 5·18 역사공원 지정

市,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에 제출

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기무부대 터를 5·18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당시 진압군의 지휘부와 민주인사들의 구금·고문 현장인 서구 쌍촌동 옛 기무부대 터(3만 8천456㎡)를 '5·18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2005년 11월 기무부대 터가 31사단으로 이전한 뒤 5·18 사적지 지정(제26호),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의회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시는 이 부지를 5·18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교육·체험 및 순례지로 조성해 민주정신을 기리는 교육과 시민 휴식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152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야 하고 공원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는 국방부 소유인 부지와 건물의 무상양여를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연차별 납부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급적 손에 물건 들지 말고 해지기 2시간 전에 하산하라

해빙기 등반 10계명

전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담양군 월산면 바심재에서 등산객 1명이 하산 중에 실족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봄철 등반시 꼭 지켜야 할 '10계명'을 22일 발표했다.

소방본부는 우선 산행하고자 하는 산의 등산로나 날씨 등 필요한 정보를 꼭 사전에 알고출발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해빙기 등산이라도 최소한의 겨울 장비를 갖추고▲가급적 손에 물건을 들지 말며▲체력에 맞게 일정을 짜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는 또 ▲하루 8시간 이상 산행을 자제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체력의 3할을 남겨두며 ▲일행중 느린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수시로 지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라고 했다. 소방본부는 특히 요즘 같은 건조주의보 속에서는 산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모두 26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 301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종류별로는 실족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산악별로는 지리산 52건, 월출산 28건, 천관산 20건, 조계산 16건 순이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최진실씨 자녀 성·본 변경 신청

쌍나팔

○…탤런트 최진실(40)이 두 자녀의 성(姓)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눈길.

○…22일 최진실의 한 측근에 따르면 최진실이 자녀를 당당하게 잘 키우겠다는 뜻으로 지난달 말 법원에 아들 환희(7)와 딸 수민(5)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했다는 것.

○…최진실은 지난 2004년 야구선수 조성민과 이혼한 뒤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해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이번 신청에 대해 아이들, 세상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연합뉴스